

생활과윤리

1. 정답 : ④

해설 :

이론 규범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의 비교

(가)는 이론 규범 윤리학, (나)는 응용 윤리학에 해당한다. 응용 윤리학은 이론 규범 윤리학과 달리 현실의 윤리적 문제에 도덕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본다.

[오답피하기]

- ①, ③ 메타 윤리학에 해당한다.
- ② 기술 윤리학에 해당한다.
- ⑤ 이론 규범 윤리학과 응용 윤리학 모두 가치 판단을 배제한 결론 도출을 핵심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

2. 정답 : ⑥

해설 :

덕 윤리의 관점에서 밀의 공리주의에 대한 반론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덕 윤리를 주장한 맥킨타이어, 을은 질적 공리주의를 주장한 밀이다. 갑은 유용성을 중시하는 밀에 대해 유용성의 합리적 계산보다 공동체의 전통이 중요함을 간과한다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⑥**

[오답피하기]

- ① 밀은 인간을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보므로, 밀에게 제기할 적절한 반론이 아니다.
- ② 맥킨타이어는 구체적 맥락을 중시하므로 맥킨타이어가 제기할 반론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③ 밀은 도덕 판단의 기준이 행위의 결과에 있음을 주장하므로 적절한 반론이 아니다.
- ④ 밀은 사회 전체의 행복 최대화가 보편적 도덕 원리임을 주장하므로 적절한 반론이 아니다.

3. 정답 : ⑤

해설 :

니부어의 사회 윤리적 관점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니부어의 주장이다. 니부어는 개인의 이타심이 애국심과 결합하여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된다고 보며(ㄱ), 강제력은 가급적 최소로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주장한다(ㄷ). 그리고 “개개의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더욱 존중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다.”라고 주장한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 ㄴ. 니부어에 따르면 개인들 간의 도덕적 관계는 설득과 조정을 통해서도 수립될 수 있다.

4. 정답 : ⑤

해설 :

토론의 자유에 대한 밀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강연자는 토론의 자유를 주장한 밀이다. 그는 어떠한 의견이 토론 과정을 통해 오류라고 합의되더라도 진리 탐구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밀은 어떠한 의견도 침묵시키지 말고 발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② 밀은 참이라고 검증된 진술만을 발언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③ 밀은 진리로 공인된 견해라 하더라도 비판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밀은 인간이 완벽한 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5. 정답 : ②

해설 :

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도덕주의적 입장을 지닌 플라톤, 을은 심미주의적 입장을 지닌 오스카 와일드이다. 플라톤은 웹툰 작가인 A에게 독자들이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는 작품을 그리라고 권고할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의 입장에서 권고할 말이 아니다. 플라톤은 예술을 통해 즐거움만 누리려고 해서 안 됨을 주장한다.
- ③ 와일드의 입장에서 권고할 말이 아니다. 와일드는 예술 작품에 도덕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 ④ 와일드의 입장에서 권고할 말이 아니다. 와일드는 예술가는 도덕적 공감을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⑤ 와일드의 입장에서 권고할 말이 아니다. 와일드는 예술 작품을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할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6. 정답 : ①

해설 :

뇌사와 장기 이식에 대한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에서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고 뇌사자의 장기 이식을 허용해야 함을 주장한다. 생명체의 활동에 뇌가 결정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ㄱ). 그리고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의 오판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므로, 뇌사 판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있다고 볼 것이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ㄷ. 제시문에서는 뇌사자의 장기 이식이 공익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본다.
- ㄹ. 제시문에서는 뇌사를 인정하므로, 심폐사만을 죽음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7. 정답 : ②

해설 :

엘리아데의 종교관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엘리아데의 주장이다. 엘리아데는 세속적 인간과 달리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의 분리를 지향하지 않는다고 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제시문의 첫 번째 문장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 ③ 제시문의 마지막 문장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 ④ 제시문의 “세속적 인간은 비록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종교적으로 행동한다.”라는 내용에서 추론할 수 있다.
- ⑤ 제시문의 “그들에게 거룩한 존재는 인간의 자유에 대한 최대의 장애물일 따름이다.”라는 내용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다.

8. 정답 : ②

해설 :

죽음에 대한 에피쿠로스와 하이데거의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에피쿠로스, 을은 하이데거이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이 살아 있는 사람에게나 죽은 사람에게 아무 것도 아님을 알게 되면 불멸에 대한 갈망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에피쿠로스는 살아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 모두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고 본다.
- ③ 하이데거는 현존재인 인간은 동물과 달리 자신의 죽음을 자각할 수 있다고 본다.
- ④ 하이데거는 현존재는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장래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 ⑤ 에피쿠로스와 하이데거는 모두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죽음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것을 강조한다.

9. 정답 : ④

해설 :

칸트, 레건, 레오폴드의 환경 윤리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값은 인간 중심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칸트, 을은 동물 중심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레건, 병은 생태 중심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레오폴드이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만이 목적으로 대우받아야 함을 주장한다(ㄱ). 생명 공동체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가진다는 주장은 레오폴드의 입장에만 해당한다. 칸트는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만이,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ㄴ). 동물 학대가 그른 주된 이유를 레건은 동물의 권리에서 찾고, 레오폴드는 동물이 지닌 생명권에서 찾는다.(ㄹ)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ㄷ. 칸트와 레오폴드의 입장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10. 정답 : ②

해설 :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 규제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값은 정보에 대한 접근은 자유로워야 하지만 생산과 유통에 대해서는 국가가 규제할 수 있다고 보며, 국가가 혐오표현의 유해성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값은 정보에 대한 개인의 접근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 ③ 을은 정보에의 접근, 생산과 유통도 개인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을은 정보의 생산에 대해 국가가 규제하는 것에 반대한다.
- ⑤ 을은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본다.

11. 정답 : ①

해설 :

효의 실천 방법으로서의 양지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가상의 편지를 쓴 사람은 부모님을 섬길 때 증자를 본받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다. 증자는 아버지의 의중을 헤아려서 봉양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③, ⑤ 제시된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다.
- ④ 제시된 편지에서 추론할 수 없다.

12. 정답 : ⑤

해설 :

칸트와 베카리아의 처벌에 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값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이다. 베카리아와 칸트에 따르면 형벌을 내릴 권위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아니라 입법자에게 있다. 그리고 베카리아와 칸트 모두에게 형벌은 공적인 정의 실현의 수단이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칸트에 따르면 범죄자는 처벌을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처벌을 받을 행동을 원했기 때문에 처벌 받는 것이다.
- ② 칸트에 따르면 사형은 살인범의 인격을 수단으로서만 대하려는 것이 아니다.
- ③ 베카리아에 따르면 처벌을 목격하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인상을 주어야 처벌의 효과가 높아지므로, 종신 노역형이 효과를 지니려면 공개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 ④ 베카리아에 따르면 누구든 자신의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양도하지 않을 것이므로 사형은 사회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13. 정답 : ①

해설 :

노동에 대한 마르크스와 베버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마르크스, 을은 베버이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노동은 소외된 노동이다. 마르크스는 노동자가 소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적 소유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마르크스에 따르면 분업은 정신적 능력을 쇠퇴시키며 소외를 심화시킨다.
- ③ 베버는 노동 계급에 강제된 금욕과 직업 노동을 의무로 여기는 청교도적 윤리가 결합하여 노동 생산성을 촉진시켰다고 본다.
- ④ 베버는 청교도가 노동을 은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함으로써 노동을 종교적 실천으로 여겼다고 본다.
- ⑤ 마르크스는 분업이 생산성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보았고, 베버는 소명 의식에 기반한 노동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고 본다.

14. 정답 : ①

해설 :

마르크스, 롤스, 노직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마르크스, 을은 롤스, 병은 노직이다.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를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마르크스는 긍정의 대답을, 롤스와 노직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ㄱ). ‘사유 재산의 불평등은 모두의 이익을 보장해야만 정당하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의 이익이 될 경우에만 정당화된다고 본 롤스는 긍정의 대답을, 모두의 이익이 되는 것과 관계없이 취득, 이전, 교정의 원리에 부합하면 소유권을 인정하며 그에 따른 불평등도 용인하는 노직은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ㄴ). 정답 ①

[오답피하기]

- ㄷ. 무지의 베일 속의 사람은 타인의 이익에 대해 무관심하지만 자신의 이익에는 관심을 지닌다고 보는 롤스의 관점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ㄹ. 자유롭게 이전된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최초 취득이 정의롭지 못하다면 그 소유물은 교정 대상이 된다고 보는 노직의 입장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15. 정답 : ④

해설 :

과학자의 책임에 대한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과 을은 모두 과학이 가치중립적이지 않음과 과학자는 연구 과정에서 연구 윤리를 준수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갑이 연구 과정에서의 내적 책임만을 주장하는 데 반해 을은 연구 과정에서의 내적 책임과 더불어 연구 결과의 활용에 대한 사회적 책임까지 주장한다는 점에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과학자에게 내적 책임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도 부과해야 하는가?’가 적절한 토론 쟁점이 될 것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갑, 을 모두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므로 토론 쟁점이 아니다.
- ② 갑, 을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므로 토론 쟁점이 아니다.
- ③ 갑은 과학자의 내적 책임을, 을은 내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모두를 인정하므로 두 사람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것이다. 따라서 토론 쟁점으로 적절하지 않다.
- ⑤ 갑, 을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것이므로 토론 쟁점이 아니다.

16. 정답 : ③

해설 :

왈처의 정의 전쟁론과 칸트의 영구 평화론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왈처, 을은 칸트이다. 칸트는 정치가 도덕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영원한 평화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정치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왈처에 따르면 전쟁에는 도덕적 제약이 따라야 한다.
- ② 왈처는 전쟁 개시, 전쟁 수행, 전쟁 종결 모두가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전쟁 수행의 정의는 전쟁 종결의 정의와 관련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④ 칸트에 따르면 국가 간 적대 행위의 중단은 아직 평화 상태에 대한 보증이 아니다.
- ⑤ 왈처에 따르면 어떤 지역의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잔악성과 고통의 정도가 극심하고, 그 지역의 어떤 세력도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 보일 때에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의 개입이 필요하다. 칸트에 따르면 어떠한 경우에도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강제적 개입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타국의 내정에 대한 강제 개입은 평화를 위해서만 허용된다.”라는 진술은 갑,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볼 수 없다.

17. 정답 : ④

해설 :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입장 비교

정답 해설 :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이다. 싱어는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원조 주체의 큰 희생 없이 타국의 빈민을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 한다고 본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롤스는 원조의 목적은 고통 받는 사회를 질서 정연한 사회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 ② 롤스는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 받는 사회가 그 사회의 정치 문화를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한 종류의 충고를 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싱어는 최대 행복의 원리가 해외 원조의 대상을 정하는 데 주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⑤ 롤스에 따르면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은 다양하기 때문에 고통 받는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의 목표가 아니다. 싱어에 따르면 원조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인류의 복지 증진이다. 따라서 롤스와 싱어의 공통된 입장으로 볼 수 없다.

18. 정답 : ③

해설 :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시민 불복종에 대한 롤스의 입장이다. 롤스는 시민 불복종을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부정의의 정도가 다소 심각한 법이나 정부의 정책을 바꾸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기는 하지만 법에 반하는 행위로 본다. 그에 따르면 시민 불복종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의 다수가 갖는 정의감에 호소하며,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알리고자 한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사회적 협동의 기본 원리에 근거한 양심적 항거이다(L). 그리고 민주적 정부에서 만들어진 법이라 하더라도 부정의하다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다(R). 정답 ③

[오답피하기]

- ㄱ.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청원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의 법에 대한 충실성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폭력적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 ㄷ. 롤스는 시민 불복종은 위법 행위이기기는 하지만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다.

19. 정답 : ①

해설 :

친구 사권의 도리 파악

정답 해설 : 대화의 스승은 이황이다. 대화의 마지막 발언에서 스승은 친구가 악하다면 학문을 통해 바로잡아 주고 자신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학문을 통해 서로를 인격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 스승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② 대화의 ‘친구가 선하면 본받고, 악하면 고쳐줄 것이니, 선함과 악함은 모두 스승이다.’라는 스승의 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③, ④ 대화에서 스승이 ‘선한 이만 가려 벗어나려 한다면 이는 곧 치우침이니라.’고 한말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 ⑤ 대화에서 스승은 옛 성현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제자에게 옛 성현의 가르침을 현세에 바르게 적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다.

20. 정답 : ③

해설 :

김리카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의 관점을 갖고 있는 김리카의 주장이다. 칼럼에서는 이주민이 자신들의 집단적 문화를 표현할 여지를 확보해 주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칼럼에서는 통합을 위해서는 다수가 공유해 온 전통적 관행을 고수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 ② 칼럼에서는 공용어를 강조할 경우 통합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 ④ 칼럼에서는 통합이 몇 세대에 걸쳐 진행된다는 점에 유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칼럼에서는 이주민에게 기본적 시민권을 보장하되 삶의 양식의 통일까지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